

SK 신용등급 AA-로 상향조정

기업평가·신용평가, 영업실적 향상으로 재무안정성 개선 기대

SK가 자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의 신용등급이 <A+>에서 <AA->로 1단계 상향 조정됐다고 6월23일 발표했다.

SK는 석유 및 석유화학 사업의 마진 강세, 윤활유 사업과 석유개발 사업의 생산 증대 등으로 2004년 창사이래 최대의 영업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 재무안정성이 급속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신용평가기관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SK네트웍스의 순조로운 워크아웃 진행 상황과 SK해운의 자체 자금조달 능력을 감안할 때 계열기업 리스크가 대부분 해소된 것과 새로운 이사회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도 등급 상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SK는 2003년 계열기업 문제로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시장상황 속에서도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채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자 신뢰회복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화학저널 2004/06/24>